

전 남

목포 지형이 바뀌고 있다

북항 배후부지 등 축구장 70개 크기 새로 생겨

목포시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 목포시의 면적은 인근 신안군의 압해도보다 약간 작은 49.9km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 1984년부터 시작된 '전국 무역항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된 북항 특화개발의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면서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1984년부터 지금까지 투자된 돈은 총 2300억. 물양장 2074m(854억)와

위관장, 수산물 직관장, 카페테리아 등이 갖춰져 관광객이나 소비자들이 직접 수산물을 보고 골라서 시식할 수 있다.

인근에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해수탕, 관광 위탁시설, 숙박시설, 수산물 전문 음식점 등을 두루 갖춘 '씨푸드 타운'이 조성된다. 올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509억(국비

러진 해양 관광지이자 새로운 부도심을 형성해 목포 원도심의 지형이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북항의 변화를 이끌 또 하나의 원동력인 목포대교 개통이 6월 말로 다가왔다. 대교가 개통되면 일평균 교통량이 3만대에 이르고, 서해안 고속도로도 개통 당시처럼 유발교통량까지 감안할 경우 3만5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대반동 배후부지(34만 2000㎡)에는 목포 수협, 어업지도서관련 시설, 해양경찰서 관련 시설, 해양 어업지도선 부두 등이 들어서 어업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곳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400억이 투입돼 연면적 8만2516㎡에 선수물자 보급창고, 냉동·냉장 시설·가공 유통시설 등을 갖춘 수산물관련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정종득 시장은 "내항(마리나 거점항), 남항(관광레저 항), 신항(대중국 무역전진기지) 등 5대항 가운데 최근 들어 서남해권 거점 항만으로 북항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해양관광 중심 도시'를 선도할 미래 중심 권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북항은 어업 지원항으로 개발돼 어업발전과 관련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는 오는 2015년이면 북항이 명실공히 먹을거리·볼거리·즐거거리가 한 곳에 어우러진다.

또 축구장 4배 크기의 해양공원도 2015년 개장 예정이다. 앞으로 2년 동안 200억 원이 투입돼 이벤트·분수·야외전시장, 산책로, 녹지 등 품격 있는 친수문화공간으로 꾸며진다.

각종 수산 관련 연구·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수산물 지원센터(부지 1만4567㎡)도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들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는 오는 2015년이면 북항이 명실공히 먹을거리·볼거리·즐거거리가 한 곳에 어우러진다.

이들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는 오는 2015년이면 북항이 명실공히 먹을거리·볼거리·즐거거리가 한 곳에 어우러진다.

물양장·입항도로 건설 '전국 무역항 개발' 박차

해양수산물 복합센터 등 항만 친수 문화공간 조성

목포대교 6월 개통 교통량 급증 거점항만 '우뚱'

소형어선 물양장 520m(258억) 등 2594m에 이르는 물양장이 조성됐고, 호안 2761m 축조와 함께 입항도로도 1675m나 개설됐다. 이로 인해 늘어난 평면 북항 배후부지 18만7000㎡와 대반동 배후부지 34만2000㎡ 등 총 53만여㎡에 달한다. 축구장(FIFA 기준)이 무려 70개가 새로 생겨난 셈이다.

북항 배후부지에는 해양수산물 복합센터, 수산물품 지원센터, 씨푸드 타운, 항만 친수 문화공간 등이 조성된다.

해양수산물 복합센터는 부지 2만 1831㎡에 공사비 159억 원이 투입돼 지난 2011년 완공됐다. 이곳엔 활어

225, 시비 84, 민자 2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축구장 4배 크기의 해양공원도 2015년 개장 예정이다. 앞으로 2년 동안 200억 원이 투입돼 이벤트·분수·야외전시장, 산책로, 녹지 등 품격 있는 친수문화공간으로 꾸며진다.

각종 수산 관련 연구·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수산물 지원센터(부지 1만4567㎡)도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들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는 오는 2015년이면 북항이 명실공히 먹을거리·볼거리·즐거거리가 한 곳에 어우러진다.



오는 6월말 개통을 앞둔 목포대교. 대교 인근에는 34만 2000㎡에 달하는 대반동 배후부지가 조성돼 각종 어업지원 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 (목포시 제공)

완도 청산도 '슬로시티' 생겼어요

한옥에 회의실·조리실 갖춰 고기잡이 생태 체험학습장도 주민 등 200여명 참석 개관식



완도군 청산도를 찾는 탐방객들을 위한 한옥형 복합 활용시설인 '슬로 시티'가 지난 21일 문을 열었다.

'슬로시티'로 지정된 완도군 청산도에 '슬로시티'가 문을 열었다. 완도군은 지난 21일 청산면 도라마을에서 김종식 완도군수를 비롯한 관내의 기관단체장·주민·출향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슬로시티' 개관식을 가졌다.

군은 2011년 행정안전부 주관의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받은 4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슬로시티'를 건립했다.

'슬로시티'는 회의실과 조리실과 세족장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한옥형 복합활용 시설로 조성됐다.

특히 조성부지는 도라리 출신인 재경향우 김영준 씨가 고향발전을 위해 기부했다.

도라마을은 다랭이 논·밭을 비롯해 청보리·유채 등 자연경관이 빼어나며, 전통 고기잡이 등 생태계 체험학습장을 갖추고 있다. 김종식 군수는 "도라마을이 자립과 생활자치의 농·어촌 거점마을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청산도에서 '느림은 행복이다'라는 주제로 '2012 청산도 슬로 걷기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국제 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세계 슬로길 1호'로 인증 받은 슬로길(11코스·42.195km)

으로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여촌 체험마을 지정, 마을기업 육성 등 다양한 패키지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상품성 있는 사업을 운영해 희망마을 선도 모델로 마을을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축제는 느리게 걷기(緩步), 웃으며 걷기(莞步), 어스레 완보(完步)한다는 '청산 완보 프로그램'을 비롯해 조개 공예와 휘리(전통어구), 슬로푸드, 발도장 찍기, 서편제 주인공처럼 걷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문의(청산도 슬로시티지회 사무실 061-550-5407)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에서 온전히 걷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걷기'를 테마로 한 전국 최초의 축제라고 지난해 7만여명이 찾았다.

이런 축제는 느리게 걷기(緩步), 웃으며 걷기(莞步), 어스레 완보(完步)한다는 '청산 완보 프로그램'을 비롯해 조개 공예와 휘리(전통어구), 슬로푸드, 발도장 찍기, 서편제 주인공처럼 걷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문의(청산도 슬로시티지회 사무실 061-550-5407)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여수 여객선 운임료 내달 10%안팎 인상
유류비 증가 경영난 가중

여수지역 여객선 운임요금이 지난 2008년 7월 이후 3년 8개월만에 10% 내외로 인상된다.

여수 지방해양항만청은 "최근 유가인상으로 유류비가 여객선 운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해 여객선사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여객선 운임요금을 4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여수 항만청은 그동안 여수지역 도서를 운항하는 10개 항로 16척의 여객선 운임요금을 도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난 2008년 7월 이후 억제해 왔다.

하지만 유가인상에 따른 여객선사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최근 여객선사들과 요금인상 협의의 틀을 통해 도서민 할인과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금년도 항로 등 7개 항로 여객선 요금을 10% 내외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적인 관광항로인 여수~거문도 항로요금은 거문도 활성화에 중점을 두기로 해 종전대로 유지된다.

여수 항만청 여객선 담당자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인상된 요금만큼 여객선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쉽다"며 "여객선사가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실버 바리스타의 커피 맛은 어떨까요

목포 무안동 '마미스 카페' 개업...노인 일자리 창출

목포복지재단 노인 직업훈련센터(센터장 하동숙)가 최근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목포시 무안동에 '마미스 카페'를 개업했다.

〈사진〉 '마미스 카페'는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12명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원두커피를 직접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하며, 쿠키와 빵도 직접 만들어 서빙한다.

이곳에서는 커피를 비롯해 생과일 주스와 국산차 등 30여 종의 차를 맛볼 수 있다.

특히 최고급 커피콩과 유기농 원료만을 사용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층에도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목포복지재단 이혁영 이사장은 "젊은층에만 국한됐던 카페문화로 어려움을 겪는 구 도심의 중·장년층에게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카페를 열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 직업훈련센터는 지난 2008년 9월 설립이후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취업훈련 전문가와 직종별 전문위원을 초빙해 취업훈련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순천 월등 향매실마을 25일 '매화잔치' 연다

'녹색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순천향매실마을에서 매화축제가 열린다.

순천시는 25일 월등면 계월리 '향매실마을' 일원 82만6500여㎡(25만평)에서 '제6회 동네방네 매화잔치'를 개최한다.

'매화잔치'와 함께 하는 행복한 어울림'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관현악과 기타 연주회를 비롯해 어린이 매화꽃 그리기 대회, 우리 가락과의 만남, 매화 가족사진 찍기, 매실을 활용한 체험행사 등 다채롭게 꾸며진다.

한편 순천향매실마을은 지난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됐으며, 국내 최대의 매실군락지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화 / 제 / 집 / 중 / 안 / 손 / 에 / 잡 / 히 / 는 / 대 / 능 / 한 / 자 / 외 / 국 / 어

대한민국 대표 한자 외국어 SERIES

한권으로 해결하는 외국어 도서의 최강자

한자, 외국어가 한 손에 쏙! 언제 어디서나 갖고 다니며 읽는 편리한 실용만점 포켓북시리즈.
대능교육만의 노하우가 담긴 포켓북 시리즈는 학습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만 골라 담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2011 DAENEUNG's Best Seller

포켓 사이즈

MP3 무로다운

효율적 학습

알짜배기 여행회화 *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7,000원

알짜배기 여행회화 시리즈
· 상황별 핵심 문형과 활용단어 구성
· 여행지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주제별 단어장 *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6,000원

주제별 단어장 시리즈
· 교육부 지정 필수단어 수록
· 각 주제에 맞는 유용한 팁과 응용회화로 구성

한자능력검정 * 시리즈 대한한자연구회

진검승부 한자능력검정 시리즈
· 급수별 한자색인, 다양한 활용단어 수록
· 예상문제를 통한 기출문제의 성향, 학습성취도 평가

수험생을 위한 맞춤 고사영어백과
대신·인사·한자능력검정시험 및 국가직 기출문제 포지
알짜배기 고사영어백과 값 8,500원

대표전화 : (02)2634-2007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